

지역 매 아리

정읍시, 농업·농촌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위한 회의 가져

정읍시(시장 유진섭)는 지난 16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정읍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김인태 부시장의 주재로 식량, 원예, 축산, 농식품가공, 농촌경제 활성화와 지역개발, 삶의 질 향상, 거버넌스와 지역역량강화 등 총 7개 분야별 업무담당 팀장과 현업 종사자를 대표하는 민간위원, 외부 전문가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2019~2023년 정읍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은 정읍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미래 발전상을 제시하고, 관련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중장기 종합발전 계획으로, 농업분야 뿐만 아니라 복지, 의료, 공동체, 체험관광, 푸드플랜 등 시 전체를 포괄하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분야별 행정, 민간위원, 전문가가 TF팀을 구성하여 현안 핵심이슈에 대한 열띤 토론과 의견개진이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앞으로도 농업인단체 간담회, 읍면동 특화사업 발굴, 분야별 TF팀의 수시 의견수렴을 통해 정확한 진단과 상호보완으로 정읍 농업발전 5개년의 지침서가 될 수 있도록 완성도 높은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이날 회의에서는 분야별 행정, 민간위원, 전문가가 TF팀을 구성하여 현안 핵심이슈에 대한 열띤 토론과 의견개진이 있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앞으로도 농업인단체 간담회, 읍면동 특화사업 발굴, 분야별 TF팀의 수시 의견수렴을 통해 정확한 진단과 상호보완으로 정읍 농업발전 5개년의 지침서가 될 수 있도록 완성도 높은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실시

부안군보건소는 21일부터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만 50세 이상 부안주민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유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대상포진은 주로 연령대가 높은 노년층에서 발병률이 높고 극심한 통증으로 건강을 위협하는 질환으로 평생 한 번의 접촉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지만 고령의 접종비용으로 접종이 부담되었던 만큼 부안군은 접종비 9만3,000원으로 주민의 비용 부담을 감소시키는 큰 역할을 하게 된다.

수두를 앓았거나 혹은 앓지 않았더라도 수두바이러스가 몸 안에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저하, 피로증가, 일상생활의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활성화되면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신경을 따라 피부의 수포를 만들어 대상포진을 앓게 된다.

또한 우리 몸의 신경 중의 하나를 따라서 띠 모양으로 퍼지기 때문에 이 질환에 걸리면 몸의 한쪽에만 통증과 수포를 동반한 피부 병변이 발생한다.

부안군보건소는 예방접종 비용 경감과 접종률 향상에 온 힘을 기울이며 대상포진으로 인한 합병증을 사전 차단하며 부안주민이 건강하게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으로 건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지속가능한 농산물 생산 기반 조성

고창군, 전국 최초로 농지 토양개량 사업 추진

민선 7기 고창군(군수 유기상)이 농생명식품산업 육성을 최일선에 둔 가운데 전국 최초로 농지 토양개량 사업을 추진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고창군은 토양환경 복원과 지력증진으로 작물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2019년 농지 토양개량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농지토양개량 지원사업은 작물의 습해, 내병성 저해 원인이 되는 경반층(단단해지는 토양층)을 깨는 것이 핵심이다. 경반층은 물 빠짐이

불량하고, 생육 장애를 일으키는 비독(비료 성분의 축적으로 인한 작물의 생육 장애)을 일으킨다. 이러한 악순환은 흙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작물이 자연적으로 생육할 수 있는 조건을 막아버린다. 이에 군은 굴삭기를 활용해 1m이 상 깊이 파서 속흙과 겉흙을 뒤집어 토양개량을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 총 사업 규모는 60ha(추구장 345개 면적), 사업비만 4억5000만원에 달한다. /고창=김영식 기자

군은 농생명 살리기의 근간인 토양 살리기를 통해 지속가능한 농산물 생산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고창 7대 전작작물(수박, 멜론, 고추, 인삼, 보리, 고구마, 땅콩)의 품질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고창군 농지 토양개량을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전국 최초 사업인 만큼 철저한 계획과 추진으로 전국 모범사례로 정착시키겠다"며 "고창군 농지를 생물권보전지역 명성에 맞게 개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주민과 격의 없는 공감대화 '열띤 호응'

유기상 고창군수, 읍·면 순회 릴레이 공감대화의 대장정 시작

유기상 고창군수가 고창읍과 고수면 읍·면 순회 릴레이 공감대화'의 대장정을 시작했다. 특히 남녀노소 누구나 군정에 대해 궁금한 것들을 질문했고, 유 군수가 속 시원하게 답변에 나서면서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고창군에 따르면 유기상 군수는 지난 16일 오전 고창읍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2019 주민과 공감대화'를 열었다.

민선 7기 출범 후 처음으로 진행된 14개 읍·면 순회 공감대화는 인문학 도시에 걸맞게 시낭송으로 열어 분위기를 부드럽게 했고, 자랑스런 주민에 대한 시상, 퇴직이장 공로패 수여, 2019년 주요 업무보고, 군정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공감대화는 소규모 사업성 건의 위주로 진행되던 기존의 운영방식에서 벗어나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격의 없는 대화로 진행돼 큰 호응을 얻었다. 현장에서 남녀노소 주민

누구나 군정 발전방향과 정책제시, 행정에 대해 궁금한 점을 질문했고, 유 군수가 직접 답변에 나섰다.

주요 사항으로는 민방위 교육의 사이버 대체교육 마련, 장애 진단 업무 간소화, 모양성 주변 사업추진 시 경관 고려, 미세먼지 알립 시스템 구축, 율령 문화지원 관리 등 정책성 건의가 주를 이루었으며, 임산부 주차장 마련, 생생바우처 취급 금융기관 확대 등 생활밀착형 민원과 농민수당 질의 등 군정 질의도 이뤄졌다. 유 군수는 정책 추진 절차를 다양한 사례를 들어 설명하며, 주민의 이해도를 높였으며, 신속한 민원 처리를 약속했다.

아울러 진정한 지방정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방안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의 중요성을 설명하여 참석자의 관심을 끌었다.

행사 후에는 성산경로당과 고수경로당을 방문해 지역 어르신들께 새해 인사를 전하고, 어려운 점을 살폈다. /고창=김영식 기자

품질과 가격 우수한 상품 파격할인 구매찬스!

단품미인쇼핑몰, 설맞이 명절할인 대잔치... 최대 40%할인

농·특산물 온라인마켓 1번지인 단품미인쇼핑몰에서 기해년 설 명절을 맞이하여 명절상품 할인 행사를 기획·운영하고 있다.

단품미인쇼핑몰은 입점업체 상품을 명절 선물세트로 기획·구성하여 상품관을 운영한다. 명절에 인기 있는 한과, 한우, 떡, 과일류 등을 최대 40%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며, 10+1, 20+1 등의 다양한 묶음 할인 등의 이벤트가 진행된다.

또한 설명절상품관 운영 기간 중 블랙데이 이벤트를 운영하여 품질과 가격이 우수한 상품을 파격할인 구매찬스를 기획하여 운영하고 있다.

정읍시 관계자는 단품미인쇼핑몰에 입점한 상품은 품질과 포장 면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지역특산품이며, 구매하는 모든 상품은 우체국 안전배송 서비스로 배송되며 부담 없는 가격으로 쇼핑을 즐길 수 있다고 밝혔다. 상품주문은 '단품미인쇼핑몰'(dampoonmall.jongup.go.kr)로 접속하거나 무료전화(☎080-535-4345, 063-532-4345) 또는 모바일도 가능하다.

2012년 1월 9일에 오픈하며 올해로 8주년을 맞이한 단품미인쇼핑몰은 그동안 40여억원의 매출과, 100여개 입점업체와 800여개의 판매상품을 구성하여 활발한 온·오프라인 홍보 마케팅 활동을 통해 지자체운영 농특산물 소싱 1번지로서 명성을 지키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단품미인쇼핑몰에서 설 명절을 맞이하여 할인행사를 기획·운영하고 있다.

부안군, 농업기계 등화장치 300여대 무상 지원

부안군은 농기계의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영농철 도로주행 농업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운기와 트랙터 등 농업기계로 도로를 주행하거나, 야간주행 시 속도가 느리고 식별이 잘 되지 않아 자동차와 충돌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군은 이를 위해 전년도에 이어 사업비 3,000만원을 투입해 등화장치 없거나 훼손된 경운기 또는 트랙터를 보유 사용하고 있는 농가에 등화장치 300대를 무상으로 지원한다.

등화장치 지원단가는 대당 10만원으로 선정기준을 미련해 대상자를 선정 공표할 계획이며, 등화장치 부착을 희망하는 농가는 이달 25일까지 읍면 산업팀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삶의 질 개선에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 표명

유진섭 정읍시장, 덕천면에서 '면민과의 대화' 가져

정읍시 덕천면 '2019년 면민과의 대화'가 17일 오전 10시 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있었다.

이날 유진섭 정읍시장은 덕천면 노인복지시설인 정읍원광요양원을 방문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면사무로 이동하여 150여명의 덕천면민과 함께했다.

이 대화의 자리는 의례적이고 경직된 행사 진행을 탈피하고 면민의 소리를 현장에서 가감 없이 듣기 위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으며 참석한 면민들은 애로사항 등을 건의하고, 유진섭 시장은 진솔한 대화로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를 표명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이 자리에서 유 시장은 "2018년 9월에 황토현전승일인 5월 11일이 동학농민혁명 법정기념일로 선정되어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다"며, "동학의 산실인 이곳 덕천면민들을 모시고 시정비전 설명과 업무보고 청취를 하게 되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 시장은 2019~2020년을 정읍방문의 해로 지정하여 정읍의 여러 문화관광 자원을 대외적으로 홍보할 계획을 알리는 등 2019년을 '둘락동시'의 마음으로 시민과 공직자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 밝고 희망찬 정읍을 만들어 내어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